

활자활극

활자 뉴스(news)는 사실, 올스(olds)다. 캐논 카메라나 소니 캠코더와 달리, 활자는 시간과 공간을 잘라 저장하지 못한다. 당신이 읽고 있는 ‘2015년 10월 26일 오전 00시 05분에 쓰여진 이 문장, 혹은 글 쓰는 나의 모습’을, 당신은 꽤 긴 시간 뒤에 종로구의 시청각에서 읽고 있을 것이다. 그 한계가, 글쟁이인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한편 끌고 나간다.

대부분의 활자 뉴스가 전하는 ‘지금’은 실은, ‘지금 직후’다. 활자 뉴스의 어미는 늘 과거형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자’라는 기자에 대한 이미지를 꼼꼼히 되짚어보라. 독자가 몰랐던 사건이 보도로 새로 알려진다는 기준에서는 몇 년 전 사건도 ‘뉴스’가 된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한다는 동시성’의 기준에서는, 벌어진 사건의 이후를 전하는 ‘올스’에 가깝다. 두 가지 이유다. 기자직이 갖는 본질적 한계, 활자의 본질적 한계.

가령 신문의 범죄전문기자는 살인사건을 볼 수 없다. 범죄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의 현장’에 가 있을 수 없다. 보도 가치가 있는 살인의 현장에 운 좋게 서 있던 기자는,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나 기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살인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그의 직업의식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윤리의식이 먼저다. 기자의 꽃이라는 사회부 기자는 사실, 대부분의 재난을 직접 보지 못한다. 그는 늘 재난 이후를 접한다. 그나마 소방서나 경찰서 등 국가기구가 조사하고, 한번 거른 재난의 팩트를 취재하고 전할 때가 더 많다. 보도 가치가 있는 홍수나 산사태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자는,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나 그는 보도 이전에 먼저 생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스포츠 논픽션 작가는 왜 그토록 스포츠를 오래 취재했느냐는 질문에,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저널리스트가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건은 오로지 스포츠 경기뿐이라고 그는 답했다. 그 스포츠 라이터가 오해했다. 기자의 접근이 허용되는 사건들이 몇 개 더 있다. 정당의 전당대회나 시민단체의 퍼포먼스, 집회·시위, 재판, 중군기자가 보는 전투.

‘현장성을 간직해’ 전하는 작업에서, 활자 기자는 영상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치열한 집회를 지켜봤어도, 활자 기자는 그 공간의 색, 사람의 눈썹의 떨림, 깃발의 펄럭임, 경찰 시선의 미묘함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 어떤 활자도 분신하는

노동자의 타는 옷을 뜨겁게 전할 도리가 없다. 그는 겨우 ‘분신했다’고 과거형의 문장으로 적는다.

현장성을 오려 전달하는 일에서 활자 기자는 사진기자나 방송 카메라 기사를 당할 도리가 없다. 방송기자는 수습 때도 신문기자와 다른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살인사건이 포착된 CCTV 동영상을 찾는다. 그가 찾은 동영상에는 통조림처럼 ‘바로 그 사건의 시공간’이 저장돼 있다. ‘지금’이 진공포장돼 담겨 있다.

그럼 이 현란한 사진과 동영상의 시대에 나는 왜 쓰는가. ‘시간과 공간을 통조림에 담은 것’이 내가 재구성할 ‘지금’의 전부라면, 나는 결코 팔리지 않는 논픽션을 2권이나 쓰지 않았을 것이다. 스페인 내전의 기록은 로버트 카파의 ‘인민전선 병사의 죽음’ 한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며, 조지 오웰의 『카탈루니아 찬가』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요새 미국 소설가·논픽션 작가 톰 울프의 말을 되새기는 일이 잦다. “활자는 필름이나 연극무대처럼 이미지나 감정을 창조하기 보다 독자의 기억을 건드리는, 간접적 매개체다. 가령, 술취한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묘사할 때 작가는 취기 그 자체에 대해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스너프 필름은 있어도 스너프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한 사람이 구토를 하고 그것을 다시 주워먹는 모습을 찍은 스너프 필름은 존재할 수 있어도, 그런 행위를 묘사한 문장은 스너프일 수 없다. 아무리 잘 묘사된 스너프 문장도, 스너프 필름을 따라갈 수 없다. 그것이 ‘의미를 담은 흑백의 기호’에 불과한 활자의 한계다. 글쟁이가 취기를 묘사할 때 그는 ‘취한 경험’에 대한 독자의 기억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정서를 전한다. 스너프는 사진과 엽기 동영상에 쥐버려라.

“오직 4개의 도구들만이 독자의 기억을 풍부하게 건드릴 수 있다. 장면(scene-by-scene)으로 글 구성하기, 대화, 시점, 그리고 사회적 삶 묘사하기(detailing of status life). 장면 구성과 대화는 활자 작가보다 영화감독이 더 잘 구사한다. 그러나 시점과 사회적 삶의 묘사는 필름보다 활자에서 더 잘 구현된다. 어떤 영화감독도 인물의 마음속으로 관객을 데려가본 적이 없다. 영화감독들은 별걸 다 해봤다.”

여기 어떤 옛날 활자 기사가 있다. 『동아일보』 1994년 9월 22일이 1면을 본다. ‘충격의 살인극 태연히 재연’ 제목이 보인다. 그해 지존과 조직원 6명이 잇달아 사람을 살해했다. 국민이 다 충격받았다. 가난한 집안 출신 남자 6명이 4명을 연쇄살인했다. ‘돈 많은 자들을 죽인다’는 명분을 가졌는데, 실상은 가난한 밴드마스터나 카페 종업원을 납치했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부자를 납치한 사례는, 기껏해야 중소기업체 사장이었다.

카메라 시선의 주인공은 기자다. 명분은, 국민을 대신한 눈이다. 그 눈은 경찰과 죽인 자를 향한다. 도끼와 공기총을 늘어놓고 피의자들이 기자들 앞에 선다. 그들은 방송 카메라를 보고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고 말한다. 사진과 카메라 기자들은 눈앞의 피의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서로 밀치고, 서로 싸운다. 아지트에서 손과 발에 포승줄을 한 채로 피의자들은 도끼를 들고 살인 현장검증을

한다. ENG 카메라를 든 영상기자가 좋아할법한 코멘트도 던진다. 그 충격의 ‘살인극’ 현장검증은 사진과 동영상에 잘 오려져 담겼다. 그 통조림은 21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만하면 재생된다.

범죄에는 시의성이 있지만, 범죄 트라우마에는 시의성이 없다. 그저 오래 간다. 피해자는 오래 아파한다. 그러나 카메라가 지존과 납치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의 심리를 비추는 건 어렵다. 카메라로 할 수 없다. 심리는 찍히지 않는다. 그것은 듣고, 말해지며, 교감된다. 마음의 상처를 사진과 영상으로 포착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어렵다. 생존자가 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나는 새벽 그의 침대 옆에서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트라우마 리얼리티 티비’가 가능한가?

납치 범죄 피해자인 생존자가 사형당한 납치범죄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도리어 “죄송하다”고 말할 때의 현장에, 사진기자가 가 있을 수 없다. 혹은 현장에 있다 해도, 그 사진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젊은 여자가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인 중년 여성에게 머리를 숙이는 사진은, 독자에게 어떤 심리적 충격도 주지 않는다. 사진거리도 되지 않는 그 조용한 액션 속에서, 심리는 폭발한다.

재난도 마찬가지다. 재난 영화는 생산과 소비가 탄탄한 장르다. 그러나 재난 소설은 좀체 찾기 어렵다. 재난과 범죄 피해자를 좇는 글쟁이의 현장은, 산사태와 살인의 현장 말고도 더 있다. 다른 곳에 더 중요한 현장이 있다. 가령, 지존파에게 억울하게 살해된 중소기업체 사장의 주거래은행 지점장의 충격이, 활자 논픽션 작가에게는 중요한 현장이다. 그는 마음의 재난을 찾아가야 한다.

하나 더. 펜밖에 없는 논픽션 작가는, 붐마이크와 카메라 감독을 포함해 최소 3명 단위로 움직이는 다큐멘터리 감독에 비해, 훨씬 인간적으로 그와 교감한다. 그의 과거가 지금 그를 이해하는 토대이며, 그의 과거가 그의 미래의 일부다.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전하는, 다성음악 같은 사건의 재구성도 활자가 영상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다. 과거가 지금을 더 잘 이해하는 토대이며, 과거가 지금 이후에 올 미래의 일부다.

지존파 사건은 오래전에 형사처벌이 끝났지만 트라우마는 계속된다. 지존파는 생존자의 과거이고, 트라우마는 생존자의 지금이다. ‘지금’을 이해하고 쓰기 위해 기억과 과거를 헤집는다. 나는 과거를 헤집어 지금을 전하며, 과거를 파헤쳐 지금의 미래를 엿보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요새, 그것이 에드워드 스노든이든, 김종필 전 총리의 5·16 쿠데타이든, 어떤 종류의 사건을 접할 때도, 강박적으로 ‘사람’과 ‘기억’에 매달린다. 그리고 결과를 토해내는 것이, 지금 내가 겨우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일이다.

활자 뉴스는 울스다. 느낌표로 집회의 데시벨을 묘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 따위의 문장부호로 노래가락의 흥겨움을 전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문장론의 ABC도 익히지 못한 평범한 신문기자가, ‘충격’, ‘경악’ 따위의 흔해빠진 관념틀에 기댄 200자 원고지 5매 기사로 사진이나 동영상과 경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회부장은 ‘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되물을지 모르지만, 활자 뉴스는 본질적으로

올스다.

그 한계가 픽션이 아닌 논픽션에 매달린 나를 갑갑하게 만들고, 동시에 나를 어떤 곳으로 이끌고 간다. 나는 당분간 ‘지금’에 대해서 활자로 쓴다.